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커지는 불안감

“확진자와 같은장소 다녀왔다”며 선별진료소 방문 급증 보건소 문의 폭주... 서귀포시, 자가격리 58명 1대1 관리

제주에서 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장소를 다녀온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별진료소를 찾거나 보건소에 전화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보건소로 상담전화가 계속 걸려왔다”며 “확진자와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불안감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22일 하룻동안 서귀포시 선별진료소에서는 유증상자 30여명의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이뤄졌다. 이전 하루 7~8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던 데 견주면 크게 급증했다.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에는 ‘현재 코로나19 검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22일부터 선별진료소 방문자가 종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이 없는데도 2번째 확진자가 찾았던 장소에 다녀와서 방문했다는 시민들도 있다”며 “이처럼 일시에 많은 이들이 방문하다 보니 코로나19 검사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열린병원에는 방역을 위해 23일까지 선별진료소를 잠정폐쇄하고 외래진료도 중단했는데, 24일부터는 진료를 재개한다. 이마트 서귀포점은 22일 오전 방역을 마쳐 24시간이 지났지만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23일 영업을 평소보다 2시간 늦춰 낮 12시부터 시작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평소 주말보다 방문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지난 22일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주도내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귀포의료원 선별진료소.

원 지사, 제주~대구 항공편 중단 추진 ‘철회’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루만에 SNS 통해 “대구시민께 죄송”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구 항공노선 일시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

고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제주의 항공기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운항을 최소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에서 대구를 방문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지역사

회 전파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 예방 조치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제주~대구 노선 항공편 일시 중단 추진방침을 철회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신속한 중단조치로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했다”며 “긴장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와 실무부서의 조치를 미처 깊이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에게 더한 아픔을 드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제주도민과 함께 대구 시민을 응원하며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민관협력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자생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기금을 투입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도내 모든 읍면동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운동인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에 압축분무기, 방역복,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날 초부터 행정시 및

모든 읍면동에 손소독제(4082개), 마스크(7220개), 압축분무기(236개), 소독제살포기(17대)를 전달 완료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틀날인 21일에는 압축분무기 260개를 추가 구입해 긴급 배부하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도 소독제살포기 87개

(읍면동당 2개소), 마스크 2만개를 확보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자생단체를 비롯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역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방역인력들은 다중이용 집합시설과 방역사각지대에 투입된다.

오은지기자

제주 음압병상 17개뿐... 병상 확보 시급

‘코로나19’ 환자 급증시 부족 제주도 “병상 추가 확보 예정”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음압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압병상은 내부의 압력을 낮춰 바이러스가 포함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한 공간으로 바이러스 질환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1027개이며, 이 가운데 제주지역 음압병상의 수는 17개(병실수 16개)로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에 마련돼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도내 코로나19 환자는 2명이지만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처럼 단시간에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음압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21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확진환자는 모두 126명으로 하루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 4층 다인실을 1인실로 개조하는 방법 등으로 35병상을 확보했고 앞으로 제주도인재개발원과 공공 유스호스텔 등 70실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모든 확진자를 음압병상에 격리하지만 환자가 급증할 경우 환자의 증상 정도를 구별해 음압병상 입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며 “증상이 심각한 환자부터 음압격리 병상과 대형병원의 음압병상에 배정하고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격리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은

“독립된 공간 생활... 외출시 보건소 연락”

도내 자가격리자 324명 도, 생활수칙 준수 당부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1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총 324명이며, 격리해제자는 245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1대1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확산세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을 안내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하는 생활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자들은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면



적 연락해야 한다. 특히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둔다.

자가격리자들은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혼자 사용해야 하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도는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다음날 격리가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품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